

문화광장



이 나 언
제주도립미술관장

전세계의 MZ세대를 취합하겠다는 의도로 시작한 건 아니지만, MZ세대들을 모두 소환한 셈이 된 미술계 행사가 있다. 뉴뮤지엄이라는 뉴욕의 미술관에서 3년에 한번 여는 뉴뮤지엄 트리엔날레다. 지구촌의 관점에서 전 세계의 떠오르는 젊은 작가들을 뉴욕을 비롯한 국제 미술 관계자들에게 선보이는 데 목적이 있다. 작가군의 다국적성을 장점으로 내세울만한 국제행사다. 2009년에 처음으로 포문을 연 제1회 트리엔날레의 제목은 ‘세대적인 것: 예수보다 어린’으로 1976년 이후 탄생한, 행사 당시 기점

MZ세대 소환의 시작 ‘뉴뮤지엄 트리엔날레’

으로 33살이 채 못된, 지구별의 젊은 작가들로 그 범위를 한정했다. 제목을 따라, 50명의 예수보다 어린 나이의 작가들을 25개국에서 모은 세 명의 공동기획자는 마시밀리아노 지오니, 로렌 코넬, 라우라 홉트만이었다. 2012년 버전 트리엔날레는 34명의 작가들과, 작가그룹, 그리고 단기적 모임을 포함해 총 50명이 넘는 참가자를 아울렀다. 이들 역시 모두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에 태어난 젊은이들로 최연장자가 1973년생이고 최연소자가 1984년생이었다. 지난 전시보다 나이의 폭이 조금 넓어졌지만 대부분이 이전에 미국 아트신에서 소개된 적 없던 신선한 작가들이었다. 재미교포 주은지 디렉터의 단독 기획이었다. 전시의 제목은 ‘다스릴 수 없는 자들’로, 평론가 홀렌드 카터는 이 전환을 ‘나이’에서 ‘데

도’로 바뀌는 형세라고 썼다.

2015년 버전은 큐레이터 로렌 코넬과 작가 라이안 트레칼틴이 함께 했다. 제목은 ‘청중을 둘러싸기’. 25개국으로부터 온 51명의 젊은 작가들을 모았다. 코넬과 트레칼틴은 10여 년간 일해온 좋은 파트너로 트레칼틴은 1981년생으로 밀레니얼 세대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는 작가이기도 하다. 2018년의 트리엔날레는 ‘사보타지의 노래들’을 제목으로 19개국의 38세 이하 작가들 30명의 신작을 소개했다. 1982년생 달톤 파울라가 최연장자, 1992년생인 리디아 아우라마린이 최연소자다. 철저하게 MZ세대의 목소리를 담은 전시였다고 하겠다.

2021년의 트리엔날레는 지난 10월 28일 오픈해, 오늘 22년 1월 23일 막을 내린다. 마굿 노튼과 자밀라 제임스가 감독을 맡아 ‘부드러운 물 딱딱

한 돌’이란 제목으로 23개국에서 초대된 40명의 신인작가들이 늘 그랬듯 MZ세대 작가들의 시각을 보여줬다. 이 전시엔 한국출신의 작가인 78년생 이강승과 85년생 로리강이 출품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그 시작부터 뉴뮤지엄 트리엔날레에서는 늘 부족할 수 있지만, 부족하기에 발전가능성이 무한한 작가들을 만날 수 있었다. 작업 방식도, 감각의 모양도, 출신국가도, 경험도, 문화도 제각각이지만, 그 어수선했던 속에서 빛나는 재능을 발견하는 재미를 꾸준히 선사했다.

이제 안정적으로 5회째를 지나고 있는 뉴뮤지엄 트리엔날레는 미술관이 개최하는 규모있는 국제행사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 역사가 여타 국제 비엔날레에 비해 짧은다는 점에서, 제주비엔날레가 참고하기에 아주 좋은 사례로 보인다.

사설

녹지병원 판결, ‘의료 민영화’ 재점화 안된다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처

분은 결국 ‘부당’하다는 결론이

었다. 원희룡 전 도정이 병원개

설 지연을 이유로 의료기관 개

설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다. 이번 개설허가

취소 무효 판결이 현재 진행중

인 ‘내국인 진료제한’ 소송에 미

칠 영향에다 의료 민영화 논란

재점화 가능성도 있어 벌써 관

심사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녹지제주

헬스케어타운의 제주도 상대 ‘

외국인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

소처분 소송’ 관련 도의 상고를 기

각했다. 원희룡 전 지사는 지난

2018년 찬·반 논란에 속의형 공

론화조사로 ‘영리병원 개설 불

허’ 결론에도 내국인 진료를 제

한하는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

렸다. 이후 병원측의 행정소송

과 개원허가 유효기간 경과로

도의 허가 취소처분이 이어지며

현 사태를 맞았다. 원 전 지사의

‘조건부 허가’ 결정은 이번 판결

로 예측불허 파장을 불러올 판

이다. 1심 계류중인 제주도 상대

‘내국인 진료제한 취소’ 소송이

일정부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녹지측이 ‘내국인 진료제한’ 소

송까지 이긴다면 내·외국인 진

료 가능한 영리병원 개설 가능

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녹지

병원 지분을 사들인 국내 의료

업체가 비영리병원 운영 계획을

갖고 있어 영리병원 재추진 가

능성을 낮게 볼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의료 민영화 ‘불씨’

재점화는 분명 우려할 대목이

다. 영리병원은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을 더욱 키운 코로나19

팬데믹에 역행한다는 점 잊어선

안된다. 도의회와 지역 국회의

원도 영리병원 ‘폐지’ 내용의 제

주특별법 개정에 의견을 모은

상태다.

판사가 위법 서슴지 않아 개탄스럽다

문득 ‘초록은 동색’이라는 속담

이 떠오른다. 풀색과 녹색은 같

은 색이라는 뜻이다. 서로 같은

무리끼리 잘 어울린다는 의미다.

그게 서민들의 얘기라면 다정다

감해서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문제는 ‘힘센 사람’끼리 서로 한

패가 돼서 작당하니 조롱거리로

비유되는 것이다. 최근 제주지

방 법원이 사기 혐의로 기소된 검사

출신 정치인의 선거를 비공개로

진행한 것이 단적인 사례다.

지난 11일 제주법원에서 형사

재판 선고가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해당

재판은 도내에서 유력 정치인으

로 활동한 검사 출신 변호사가

‘피고인’으로 지정된 사기사건

이다. 방청객 없는 법정에서 이

변호사는 지인에게 수억원을 빌

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의 선거를 받았다. 문

제는 판사의 비공개 결정이 특

를 넘어 위헌 논란까지 제기된

다는 점이다.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는 법률이 있지만

‘선고’만큼은 비공개로 진행할

근거 자체가 없다.

판사가 재판의 기본조차도 모

른 채 선고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단순한 특혜 논란의 문제

가 아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재판의 심리와 선고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심리도 비공개할

경우 재판장은 그 이유를 밝혀

야 한다. 비공개 결정도 피고인

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사생활이나 신변보호를 위한 것

이다. 헌법 수호기관인 법원이

스스로 위법을 서슴지 않았다.

같은 법조인끼리 감싸는 것이

준법보다 그렇게 중요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역시 초록은

동색이었다. 가뜰이나 불신받는

사법부가 어떻게 신뢰를 되찾을

지 심히 우려스럽다.

열린마당

오라 119안전센터 응급구조 실습을 마치며

김 세 언
제주한라대학교 응급구조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적 책무이며 이를 담당할 응급의료체계의 핵심 인력인 1급 응급구조사의 양성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오라 119센터에서 현장실습은 많은 경험과 교훈을 안겨주었다. 어느 날 센터에 경보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대원들은 반사적으로 몸을 움직이며 현장으로 출동했다.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출동하는 모습에서 단 1초의 시간도 허비할 수 없다는 생명 지키기의 결기가 느껴졌다. 방호복을 입

고 구급차에 동승하는 순간 이미 구급대원의 일원이 돼 있었다. 현장에 도착하고 환자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1분이라는 시간이 누군가에겐 무의미할 수 있지만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된다는 것을 느끼게 한 현장은 큰 배움터가 됐다.

한정된 시간을 최대한 유의미하게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땀이 필요한지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됐다. 출동이 없을 때 대원들은 장비 사용법과 소방복 착용 실습도 잊지 않았다. 언제 있을지 모를 응급상황에 대비해 항상 출동태세를 유지하는 대원들의 일상 또한 큰 배움이였다. 머지않은 날 소중한 인명을 지키는 응급구조사로서 당당히 서 있을 날을 꿈꿔본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소중한 것을 가슴에 새길 수 있어서 고마웠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문예재단 승진인사 반박에 반박

환배뜸부기 사진 전시회 눈길

후보자 7인 추가 입장문 내놔

○…지난 여름 제주에서 첫 번식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된 하얀배가 불룩 튀어나온 환배뜸부기 사진 전시회가 마련돼 눈길.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 박물관은 지난해 7월 제주를 찾은 환배뜸부기 한 쌍이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 웅선달이 습지에서 동지를 틀고 새끼 한 마리를 낳는 과정 등을 담은 사진을 올해 첫 테마 전시로 결정하고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제주 체협관 입구 테마 전시코너에서 전시할 예정.

노정래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은 “이번 전시에선 환배뜸부기의 번식과정과 비롯해 뜰부기류 박제 표본과 동지, 동영상 등을 관람할 수 있다”며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언급.

고대로그자

○…1월 말 예정된 제주문화예술회관의 승진 인사가 불공정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후보자 7인의 지난 12일 입장문에 대해 재단 인사팀이 13일 홈페이지에 이어 14일 “승진 인사 적법하고 공정하게 진행” 제하의 보도자료를 내놓자 후보자들이 반박.

후보자 7인은 17일 ‘추가 입장문’에서 승진 시기와 승진 심사제도 개선에 대한 직원 의견 수렴이 없었던 점, ‘규정 준수’라고 하면서도 ‘인사평가 내규’에 따른 2021년도 평가는 뒷전인 점 등을 지적.

이들은 이승택 이사장이 오히려 규정을 어기고, 독소 조항을 악용하고 있다면서 ‘육아휴직자 승진 심사 불이익 처우’ 건은 14일 국민신문고에 추가 신고했다 고 점언.

전선희기자

채권신고공고(1차) 본 회사는 2022년 01월 10일 총주주서면 결의에서 해산 결의 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22년 03월 17일 (2개월간)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01월 17일 주식회사 케이원솔라파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서성로 955-42 청산인 김민규	채권신고공고(1차) 본 회사는 2022년 01월 11일 총주주서면 결의에서 해산 결의 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22년 03월 17일 (2개월간)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01월 17일 주식회사 제주탐에너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평동 218 청산인 장익환	채권신고공고(1차) 본 회사는 2022년 01월 11일 총주주서면 결의에서 해산 결의 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22년 03월 17일 (2개월간)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01월 17일 주식회사 금악솔라파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3364 청산인 김희철	채권신고공고(1차) 본 회사는 2022년 01월 11일 총주주서면 결의에서 해산 결의 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22년 03월 17일 (2개월간)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01월 17일 주식회사 애월태양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4289-1 청산인 김민규	채권신고공고(1차) 본 회사는 2022년 01월 12일 총주주서면 결의에서 해산 결의 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22년 03월 17일 (2개월간)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01월 17일 제주솔리원 주식회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점촌3길 6, 2층(노형동) 청산인 김민규
채권신고공고(1차) 본 회사는 2022년 01월 10일 총주주서면 결의에서 해산 결의 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22년 03월 17일 (2개월간)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01월 17일 주식회사 탐라에너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1613-3 청산인 장익환	채권신고공고(1차) 본 회사는 2022년 01월 11일 총주주서면 결의에서 해산 결의 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22년 03월 17일 (2개월간)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01월 17일 주식회사 구좌에너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2452 청산인 김봉진	채권신고공고(1차) 본 회사는 2022년 01월 11일 총주주서면 결의에서 해산 결의 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22년 03월 17일 (2개월간)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01월 17일 주식회사 봉성에너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4246 청산인 김봉진	채권신고공고(1차) 본 회사는 2022년 01월 11일 총주주서면 결의에서 해산 결의 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22년 03월 17일 (2개월간)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01월 17일 주식회사 평대에너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2825 청산인 박미숙	방수 단열 우 리 탄 우 리 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